

동남아 '김정남 암살' 북한에 등 돌리나

북한, 말레이서 무기 등 암거래 위장회사 '글로벌' 정체 드러나 반복감정 인니·베트남으로 확산

김정남 피살사건 때문에 그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교묘히 회피해온 북한의 운신이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타국 국제공항에서 버젓이 암살을 자행한 데다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 독가스 VX를 사용한 혐의 때문에 우호적 국가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 때문이다.

27일 AFP통신,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말레이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를 가장 왕성하게 해 온 곳이다.

말레이와 북한은 양국 국민이 상호 비자 면제협정에 따라 서로 자유롭게 오갈 정도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관계를 토대로 말레이에는 북한의 여러 산업체가 진출해 국적과 상호를 위장하고 무기 따위를 암거래해왔다.

김정은 암살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RGB)이 말레이에서 운영하던 '글로벌'이 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대북제재를 감싸는 유엔의 전문가 패널리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실상이 잘 조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아프리카 에리트

레아로 운송되던 중 포착됐다. 이 장비들은 말레이에 있는 업체 글로벌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업체의 위장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3국에 설립한 회사가 국제 무기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고성능 무기류를 외국에 공급해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암약은 최소한 말레이에서 막을 내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성들이 동원된 혐의도 있어 현재 반복감정은 말레이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기미가 있다.



북한 '글로벌'의 말레이시아 주소지 건물 전경.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북위 장수 이주영

이주영(爾朱榮, 493-530)은 북위 왕조 말기의 장수로 산서성 북수용천 출신이며 자는 천보다. 북위를 사실상 붕괴시킨 6진의 난을 진압하고 북위 말기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강력한 한화정책을 펼 호문제의 낙양 천도(493) 이후 뒤를 이은 선무제와 효문제(재위 515-528) 치세 동안 북위 정권은 번영을 구가했다. 낙양을 비롯한 각지에 수천여개의 사찰이 세워졌다. 선무제가 세운 낙양의 영명사에는 서역 제국에서 온 승려가 3천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북위 귀족제제는 변경에 배치된 군사력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나 한화정책과 문치주의 노선이 강화됨에 따라 변방 군대에 대한 무시나 차별이 심해졌다. 250년전 북위 정권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 세력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북위

로이 정착한 지역에서 식량이 부족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탄압이 심해지자 재차 봉기하였다. 봉기군의 수령으로 추대된 갈영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다. 상곡에서 봉기했던 유현 진민 두라주 세력을 병합해 기주, 운주 등 사실상 허북성 전역을 병탄했다. 가장 백만대군을 규합해 수도 낙양으로 진군했다.

진압군은 이주영이 이끌었다. 그는 일차 변경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도독 환상도제군을 거쳐 박릉군공에 봉해졌다. 528년 현재의 태원에 해당하는 진양에서 수도 낙양으로 들어왔다. 당시 조정은 효문제 세력과 모친인 호태후 세력이 크게 대립한 상태였다. 호태후는 자신이 낳은 효문제를 독살하고 3세의 유아 원치를 내세웠다. 이주영은 낙양으로 진군해 한음에서 호태후와 원치를 죽이고 조정 신하 2천여명을 주살했다. 이어 효장제를 새로

“김정남 암살 용의자 여권 없이 공항 왔다”

공범 접촉 시도 가능성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영(29·사진)이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의도 없이 비행 현장인 공항에 다시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말레이시아 수

사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흐영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틀 후인 15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망갈 준비 없이 경계가 심한 공항에 왔다가 붙잡힌 것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용의자 흐영의 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의자 흐영은 다시 돌아온 공항에서 체포될 때에는 당황해하지 않고 경찰에 미소를 띤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뿐 아니라 대부분의 짐은 호텔 방안에 그대로 둔 채였다. 말레이시아 매체 동방일보(東方日報)에 따르면 흐영 용의자는 공항에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 “등

로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흐영은 살해 사건 전후 검은 모자를 눈 밑까지 내려쓴 북한 국적의 남성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공항에 돌아온 이유가 이 남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흐영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던 남성과 연락이 끊기자 이 남성을 찾으려고 했거나 보수를 받기 위해 공항에 다시 왔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내일 첫 의회연설

세계개편안 나올 지 주목

28일(현지시간·한국시간 1일 오전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이 그의 입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속된 트럼프 랠리가 이어질지 여부가 이번 연설에 달렸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세계개편안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가가 5% 이상 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오는 8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세계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국경세에 대한 입장,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 금융권 규제완화 등 다른 주요 경제정책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 가족 갈 곳은 어디에 캐나다 경찰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퀘벡 주 헤밍포드 미국 접경 산간에서 도보로 밀입국하는 콜롬비아 출신 난민 가족을 발견, 마을로 이송하려 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강제 추방당할 것을 우려해 미국을 벗어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연합뉴스

육진의 난 진압... 권세 부리다 피살

의 허북지배는 요소요소에 배치된 진(鎭)의 군대로 지탱되었다. 특히 북쪽 변경에 배치된 북진(北鎭)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523년 북위 제국의 붕괴를 부른 6진의 반란이 발생했다. 육야·회삭·무천·무영·유현·회황의 6개 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주영은 북수용천에 거주한 흉노족 계호부락의 수령이다. 효문제 연간에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자 각 종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후경, 고향 등의 무장을 휘하에 받아들였다. 이주씨는 산서성 북부에서 수만마리의 말을 사육하고 있었다. 낙양 천도 후 귀족문화에 물들지 않은 중양 귀족과는 달리 남쪽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소수 민족의 수령으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523년 회황에서 시작된 변경의 난은 반년 사이에 허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흉노출신 한발릉은 육야진에서 봉기해 반복위의 기지를 높이 세웠다. 연호를 진왕으로 고치고 20만명에 달하는 반란군을 지휘했다. 황하를 건너 낙양으로 진군했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중양군의 계략에 말려들고 부장인 마열하가 변절함에 따라 불의의 기습을 당해 완패하고 말았다. 북위 조정은 포로로 잡은 20여만 군인들을 허북의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

이 융립했다. 정권의 실력자가 된 이주영은 갈영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했다. 7만여명의 날병 기병을 이끌고 허북의 업성을 공격하고 있는 갈영의 배후를 기습했다. 계속되는 승전에 자만심에 빠진 갈영은 진압군의 세력을 가볍게 여겼다. “이주영 같은 장군은 하나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긴 밧줄을 마련했다가 그가 오면 함께 가서 묶기만 하면 된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갈영의 군대가 분산되어 있음을 알아채고 추력부대를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다음 싸움을 유인했다. 이주영의 꿰에 빠진 갈영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갈영은 체포된 후 낙양에 압송되어 처형됐다. 538년 사실상 6진의 난은 진압되었다. 대장군의 지위에 올라 진양에 군대를 주둔시킨채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친당을 세워 황제의 동정을 감시하고 사소한 정사까지 일일이 간섭했다.

이주영의 외압을 달가워하지 않던 효장제는 성양왕 원휘와 모의해 일궈낸 그를 살해했다. 그의 부하인 분주자사 이주조는 살해 소식을 듣자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궁에 들어가 황제를 목 졸라 죽였다. 이주영 사후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열해 사실상 제국 붕괴의 길에 들어섰다.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